

『東醫寶鑑』에 나타난 錢乙의 五臟辨證 研究

柳明淑 · 車雄碩 · 金南一*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The Study of Qian Yi(錢乙)'s <Wu Zang Bian Zheng-Patterns of 5 Organs(五臟辨證)>, In Dongeuibogam 『東醫寶鑑』

Lyou Myung Sook · Cha Wung Seok · Kim Nam Il

In Dongeuibogam 『東醫寶鑑』, Qian Yi(錢乙)'s <Wu Zang Bian Zheng-Patterns of 5 Organs(五臟辨證)> had been reorganized in more elaborated ways, comprising Ju dan Gae(朱丹溪)'s 'Yang is always sufficient and Yin is always deficient theory(陽有餘陰不足論) and Li Dong Yuan(李東垣)'s 'Theory of the Spleen and Stomach(脾胃論)'.

In organizing the contents, 5 Organs(五臟) were mostly concerned especially 'the Heart, the Fire(心火) and the Kidney, the Water(腎水)' as the axis and 'the Spleen and Stomach(脾胃)' as the center of 5 Organs. Based on this concept, the patterns of disharmonies were categorized and the table of content was organized.

In this book, Deficiency-Excess and Nourishing-Draining(虛實補瀉) is the basic treatment rule and the concept of 'Yin and Yang(陰陽)' and 'Exterior and Interior(表裏)' is considered to help tell the prognosis.

This book has importance of systemizing Qian Yi(錢乙)'s <Wu Zang Bian Zheng-Patterns of 5 Organs(五臟辨證)>, which was previously mentioned in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Euibangyoochui(『醫方類聚』), Euirimchyalyo(『醫林撮要』), by comprising the theories of Jin Yuan Si Da Jia -the four great masters of the Jin Yuan Dynasties(金元四大家).

*1)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southkim@khu.ac.kr, Tel : 02-961-0672

I. 머리말

『靈樞·逆順肥瘦篇』에서는 “갓난아이는 기혈이 모두 적어서 살이 여리고 기가 약하다”¹⁾라고 하였고 『顛顛經²⁾·脈法』에서는 ‘순양체(純陽體)’라는 소아생리의 提綱과도 같은 명제를 밝히긴 하였지만³⁾ 宋代의 錢乙이 『小兒藥證直訣』에서 五臟六腑에 관한 소아생리의 관점⁴⁾과 五臟으로 변증되는 증상⁵⁾들을 거론하게 되면서 이후에 소아 관련 의서들은 대부분 오장변증을 통하여 치법의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전씨의 五臟辨證은 이에 그치지 않고 金元四大家의 醫論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易水學派의 張元素는 錢氏의 ‘瀉青丸’, ‘瀉心湯·導赤散’, ‘瀉黃散·益黃散’, ‘阿膠散·瀉白散’ ‘地黃丸’ 처방을 오장허실에 따른 표준방제로 사용하였으며⁶⁾, 白朮散(錢氏白朮散)의 方意는 李東垣이 ‘脾土’를 중심으로 臟腑論에 관한 의론을 세울 수 있게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장부변증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 효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明代의 薛己는 錢乙의 五臟理論을 수용하여 五臟中心의 변증치료와 腎陰不足을 치료하는 良藥인 六味地黃丸을 다용하는 등 中國에서는 溫補學派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小兒科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金元四大家를 거쳐 明代의 溫補學派에 까지 영향을 주었던 錢乙先生의 『小兒藥證直訣』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전기 『鄉藥集成方』⁷⁾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처방(錢氏小兒方)만을 취할 뿐 『小兒藥證直訣·五臟病』이나 『小兒藥證直訣·五臟所主』와 같은 錢乙의 五臟辨證에 관한 醫論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鄉藥集成方』을 살펴보면 A.D 1119에 나온 『小兒藥證直訣』보다 앞서 編纂된 『太平聖惠方』⁸⁾의 내용을 중심으로 小兒科를 따로 분류하여 몇 가지 處方⁹⁾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A.D 1445년 『醫方類聚·小兒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小兒藥證直訣』의 내용을 총론에서 잡병까지 빼놓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¹⁰⁾.

1) “嬰兒者 氣血少肉脆氣弱”

2)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卷45 「小兒雜病諸證」, 『文淵閣四庫全書』 卷2, 여강출판사, 1988, p868 : “中古有巫方, 立小兒顛顛經, 以占壽夭, 判疾病死生, 世所相傳, 有小兒方言”: 이렇게 『諸病源候論』에서 밝히고 있는 『顛顛經』과 『文淵閣四庫全書』에 포함된 『顛顛經』은 열거되는 증후가 다르며 『千金方』, 『聖惠方』에 나오는 醫方기록에도 현존하는 『顛顛經』의 처방은 수록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錢乙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에서도 밝혔듯이 衛氏의 『顛顛經』은 傳本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3) 『顛顛經』, 『文淵閣四庫全書』 권 6, 여강출판사, 1988, p738 : “凡孩子 三歲以下 呼爲純陽 元氣未散 若有脈候 卽須於下一寸取之 不得同大人分寸 其脈候未來 呼之脈來三至 吸之脈來三至 呼吸定息一至 此爲無患也”

4) 錢乙, 『小兒藥證直訣』,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p1. “小兒在母腹中 內生骨氣 五臟六腑 成而未全 自生以後 則長骨脈 五臟六腑之神智也”

5) 上揭書, 『小兒藥證直訣』 p5. “心主驚…肝主風…脾主困…肺主喘…腎主虛, 無實也…”

6) 陳大舜 主編 外 2名,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p142

7) 발행년도 : A.D 1433

8) 발행년도 : A.D 992

9) 大黃元(小兒壯熱), 錢氏小兒方(小兒夜啼), 黃芪散(小兒盜汗), 蟬蛻散(小兒疹痘瘡), 半粟散(小兒脾胃氣不和不能飲食), 三聖散(小兒慢驚風), 地黃丸(小兒行遲), 郁李仁丸(小兒大便不通) 이상 총 8개 처방.

10) 總論, 變蒸, 眼, 耳, 鼻, 龜背, 難乳, 脾胃, 黃疸, 宿食, 癰疽, 丹毒, 諸淋, 疥疔, 疥疔鍼灸, 諸蟲, 諸疳, 傷寒, 傷寒鍼灸, 諸

『東醫寶鑑』에서는 錢乙의 ‘五臟辨證’을 한층 심화하여 소아의 생리, 병리적 특징을 포괄할 수 있는 丹溪先生의 ‘陽有餘陰不足’에 관한 의론을 수용하고 東垣先生의 脾胃論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오장변증을 체계화하였다. 이에 心火와 腎水를 五臟의 樞機로 삼고 脾胃中土를 虛實辨證의 요체로 삼아서 五臟所主¹¹⁾의 체계로 목차를 제 구성하고 병증을 분류하게 되었다. 또한 五臟辨證과 더불어 虛實補瀉를 기본 治法¹²⁾으로 삼고 陰陽, 表裏를 판단하여 병증의 順逆과 輕重을 따져서 예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³⁾. 이렇게 조선의학에 수용된 錢乙의 醫論을 먼저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 『醫林撮要』를 순서로 小兒門을 중심으로 개괄한 이후에 『東醫寶鑑』에 수용된 錢乙의 五臟辨證에 관한 내용을 金元四大家의 醫論과 비교하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朝鮮前期醫書에 나타난 錢乙의 五臟辨證

1. 鄉藥集成方: 67卷~75卷(세종15년)

1) 聖惠方 인용

世宗15년(1433년)에 처음 간행된 『鄉藥集成方』에는 卷67부터 卷75까지 小兒에 관련된 疾病들에 관하여 病論과 治方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宋代의 『太平聖惠方』이나 『聖濟總錄』, 『三因極一病證方論』 등을 위주로 구성된 전체적인 編制와 크게 벗어나지 않게 주로 『千金方』, 『聖惠方』 등 唐·宋代의 方書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2) 錢氏(小兒)方¹⁴⁾ 取用

『鄉藥集成方』에서는 錢氏의 五臟辨證에 관한 혹은 小兒와 關聯된 醫論은 다루지 않고 8種의 處方만을 인용하고 있다. 실제 引用되고 있는 治方들은 錢氏의 代表方이라고 할 수 있는 처방들이다. 그 중에서 地黃丸을 引用한 내용을 보면 腎이란 精과 神이 머무는 곳이며 元氣가 달려있는 곳이라고 보고

汗, 雜病 이상 총 21회

11) “心主驚, 肝主風, 脾主困, 肺主喘, 腎主虛”

12) 易寒易熱의 소아병리적 특징을 감안하여 發熱에 있어선 寒熱辨證을 (∵圖書集成醫部全錄, 권16, 新文豐出版公司 p60 : 『河間六書·小兒論』 “大概小兒病者 純陽 熱多冷少”)대신하여 熱의 위치는 五臟을 기준으로 찾고 발열의 眞假는 虛實로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3) 痘는 腎虛를 겸해서 나타나는 臟腑의 虛實과 輕重, 順逆, 善惡, 陰陽으로 예후를 판단하게 하였다.

14) 世宗朝命撰, 鄉藥集成方, 卷下, 대성문화사, 1992.

있는데 이는 『東醫寶鑑·五臟門』에서 腎臟에 인용된 『難經』의 “命門者, 精神之所舍, 元氣之所係”의 내용과 비교 해볼 만하다¹⁵⁾. 표6. 을 보면 『鄉藥集成方·小兒門』에서 錢乙先生의 처방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인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小兒壯熱 - 大黃元(p386) : 治諸熱, 大黃 黃芩 各一兩
- 小兒夜啼 - 錢氏小兒方(p391) : 治夜啼 燈花一顆 取下塗乳上與兒吮之
- 小兒盜汗 - 黃芪散(p400) : 治虛熱盜汗, 牡蠣燒 黃芪 生乾地黃焙 等分
- 小兒疹痘瘡 - 蟬蛻散(p407) : 治斑瘡入眼 半年以後一作裏者 一月取效, 猪懸蹄甲 二兩 入罐子內鹽泥固濟燒存性 蟬蛻去土 用末一兩
- 小兒脾胃氣不和不能飲食 - 半粟散(p414) : 治小兒脾胃虛寒吐瀉等病 及治冷痰, 半夏一兩 湯洗七次 切火焙 眞粟米三錢 粳米亦得
- 小兒慢驚風 - 三聖散(p420) : 化痰涎寬膈消乳癖化驚風 食痢諸疳 小兒一歲 已裏常服極妙 次有, 青黛一分 牽牛末三分 膩粉二錢
- 小兒行遲 - 地黃丸(p462) : 治小兒數歲不能行 由稟受血氣不足 則髓不滿骨 故軟弱 腎主髓 又治小兒鶴節亦有腎虛 腎者精神之所舍 元氣之所繫 若其氣強則 骨髓滿溢肌膚充盛 若氣不足眞氣不守 邪氣所侵 腎髓枯竭不榮 令骨痿羸瘦
- 小兒大便不通 - 郁李仁丸(p492) : 治襁褓小兒大便不通 并驚熱痰實, 大黃半兩去皮 剉碎酒浸半日 住乾炒爲細末 郁李仁半兩去皮 滑石五兩細研

2. 醫方類聚:(세종27년:1445)

『醫方類聚』의 편찬 즈음에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 등의 醫經과 金元四大家의 醫論이 도입되어 조선전기까지 이어져 온 경험적 의학내용인 鄉藥과 체계적 理論이 결합되기 시작하였다¹⁶⁾. 특히 小兒門에는 각종 소아과와 관련된 전문서적의 引用이 多數인데 그 중에서 『小兒藥證直結』의 인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五臟辨證의 수용

① 五臟門, 三焦門 분석

15)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1987. p146.

16)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대한 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1:5:137-150

『鄉藥集成方』에도 脾胃門은 있지만 『醫方類聚』에서는 脾胃門뿐만 아니라 五臟門, 三焦門이 따로 존재한다. 특히 卷 6의 五臟門에서는 臟腑의 表裏虛實과 五臟配屬을 설명하고 있는데 ‘脾胃虛實’, ‘肺大腸虛實’, ‘腎膀胱虛實’, ‘肝膽虛實’, ‘心小腸虛實’, ‘腎三焦虛實’의 脈, 病證, 治方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⁷⁾. 특이한 것은 ‘腎膀胱虛實’과 ‘腎三焦虛實’을 따로 두어 구분하고 있다는 점인데 三焦門을 따로 두어 설명하고 있는 것과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니까 『醫方類聚』를 편찬할 때만 되어도 三焦에 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② 小兒門 분석

〈小兒門 · 總論〉에서 『小兒藥證直結』의 〈小兒脈法, 五臟所主, 五臟病證, 五臟上乘輕重〉을 인용하면서 『小兒藥證直結』의 總論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동시에 〈面上證, 目內證〉을 통한 望診法도 다루고 있으며 〈肝外生感風 · 肝熱, 肺熱 · 肺盛冷風 · 肺虛熱 · 肺臟怯, 心熱 · 心實, 腎虛〉 부분에서는 五臟病證에 虛實治法을 기준으로 전을 선생의 대표방인 ‘大黃元, 瀉白散, 阿膠散, 導赤散, 瀉心湯, 地黃丸’을 기본 治方으로 쓰도록 하였다.¹⁸⁾

『醫方類聚 · 小兒門』 〈總論〉의 病誤用巫에서는 『小兒藥證直結』 中卷¹⁹⁾에 나오는 五歲 患兒의 治驗例을 인용하고 있는데 ‘直視, 不食, 言有神祟所使’의 증상이 있어 무당을 불러 굿을 하여도 낫지 않는 것을 보고 錢氏가 五臟辨證을 통해 瀉肝丸을 주어 낫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臟腑辨證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 뿐 아니라 『永類鈴方』의 인용에서는 〈五臟病證形色兪見面部, 五臟各部所主形色分見面部〉를 통하여 五臟을 중심으로 한 望診法을 상세하게 적고 있으며 『省翁活幼口議』의 인용에서는 〈小兒面部氣色〉의 내용을 살펴보면 五臟으로 望診이 가능한 각각의 部位를 〈五位分部定位〉에서는 五臟부위의 望診을 통해서 病證의 豫後를 상세히 거론하고 있다²¹⁾.

참고) 『東醫寶鑑 · 小兒門』에 인용된 醫方類聚

17)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p58

18) 醫方類聚, 小兒門, p7

19) 前掲書, 『小兒藥證直結』 p100~101 사이에 있어야 할 이 치험례는 판본에 따라 전혀 없거나 다른 치험례가 거론되고 있다.

20) 현상 이전의 세계에 관하여 일방적인 계시나 상경을 하늘에서부터 일반인에게(天→巫→人) 전달하는 것이 巫였다면 天(圓), 地(方), 人 사이에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능동적으로 의학적 기술을 통하여 펼치는 것이 醫術의 시작임을 밝히고 있다. 즉, 실제 현상이전의 세계와 관련 없는 병증에는 체계적인 변증을 통하여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를 임상례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다.

21) 前掲書, p20, 28, 52~55

天吊驚風²²⁾,泄痢²³⁾,痘瘡亦時氣之一端²⁴⁾,解毒²⁵⁾,痘後諸證(咬牙)²⁶⁾ 총 5회 인용되고 있다.

3. 醫林撮要²⁷⁾

1) 丹溪學派의 醫論 수용 - 醫學正傳 중심 -

이미 金元四大家의 의학이론을 충분히 습득하였으며 특히, 丹溪學派에 영향을 받은 醫學正傳(A.D1515)에 기초하고 있는 『醫林撮要』는 이미 기본 틀은 明代의 종합의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²⁸⁾ 宋代 『太平聖惠方(A.D992)』을 주로 인용하였던 『鄉藥集成方』과는 다르다. 소아문에서는 또한 丹溪와 同時代를 살았던 元代 危亦林的 『世醫得效方』의 醫論과 治方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錢氏의 이름을 자주 붙이는 ‘白朮散’을 『小兒藥證直結』에서 직접 인용하지 않고 『醫學正傳』을 통하여 인용하고 있으며 錢氏의 代表方이랄 수 있는 ‘地黃元’조차 『醫學正傳』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²⁹⁾을 볼 때 『醫林撮要 · 小兒門』의 내용은 다분히 의학정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局方, 玉機微義에서 인용한 白朮散服用方法을 밝히고 있으며³⁰⁾ 錢乙이 急驚風에 사용했던 대표처방인 ‘瀉青丸’도 『醫學正傳』, 『玉機微義』에서 인용하면서 『得效方』의 처방용량과 제법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용법의 다양한 운용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2) 五臟辨證의 觀點

표 1. 에서 보듯이 『醫林撮要』에서는 五臟中에서 心和腎을 다른 五臟과 구별하고 있다. 肝脾肺는 虛實(陰陽)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소아에게 있어 心臟은 實證이 腎臟은 虛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³²⁾으로 보고 있어 大人과는 다른 小兒用藥의 기본 틀인 心腎의 軸을 유념하고 있는 것

22) 前掲書, 東醫寶鑑, p643 : <孫眞人>曰 乘馬遠行 當沐浴 更衣然後 方可近於嬰兒 否則多爲天吊急驚之疾. <錢仲陽>曰 步履糞穢之氣 無使近於嬰兒 令兒急驚風搖也(類聚).

23) 前掲書, 東醫寶鑑, p651 : 小兒疳瀉痢 青白黃沫水 痢色變易無常…赤痢 宜黃芩芍藥湯方見大便 虛滑 宜固腸丸方見大便. 白痢 宜益元散 溫六丸方見暑門…(類聚).

24) 前掲書, 東醫寶鑑, p655 : 凡傷寒時氣 熱毒內盛 多發炮瘡 其瘡大小 形如豌豆 故謂之 豌豆瘡…五內七竅 皆有也(類聚)

25) 前掲書, 東醫寶鑑, p660 : 【黑散子】解毒毒 初出服此 便消不出…(類聚).

26) 前掲書, 東醫寶鑑, p663 : 上下齒相磨 切有聲 謂之 齧齒 卽咬牙也 亦曰 憂齒(類聚)

27)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十二~十三, 影印本.

28) 김홍균,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pp100~101

29) 上掲書, p38 : 醫學正傳의 加減八味元의 處方에 관한 說明을 덧붙이고 있다.

30) 上掲書, p36

31) 上掲書, p37 : 龍膽三錢 餘各五錢 名涼肝圓 卽兩作四十九也

32) 尙書에 나오는 五行의 現象을 보면 “木則曲直 火則炎上 土則稼穡 金則從革 水則潤下” 木은 曲과 直으로 土는 稼(심다)와 穡(거두다)으로 金은 從(좃다)과 革(바꾸다)으로 待對가 되는 現象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火는 炎上으로 水는 潤下로 각각

으로 보인다. 즉, 六腑(腸胃)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小兒은 五臟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八歲 이전의 小兒을 純陽의 단계로 설정한 『醫學正傳』의 醫論에 따라 心火는 炎上하고 腎臟은 아직 왕성한 때가 아니기에 나타나는 병리적 상황(陽盛陰虛)을 유념하고 用藥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³³⁾. 이에 따라 小兒에게 있어 心臟은 補할 것이 아니요 腎臟은 瀉할 수 있는 臟이 아닌 것을 표방하고 있다.

	肝	心	脾	肺	腎
補	地黃元		益黃散	阿膠散	地黃元(腎無瀉法)
瀉	瀉青丸 涼驚丸 安神丸	導赤散	瀉黃散	瀉白散	

표 1. 醫林撮要에 나타난 五臟補瀉用藥

또한 대부분 의사의 誤治로 발생한다는 疳病³⁴⁾은 『小兒藥證直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五臟疳의 내용을 보면 錢乙의 주장처럼 먼저 母臟이 되는 臟을 補하고 後에 本臟을 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疳病의 특성³⁵⁾상 脾臟과 腎臟은 母臟을 補하는 것이 아니고 本臟을 補하게 되어 있다. 소아에 있어 腎虛의 생리적 특징을 감안하면서 병리적 원인이 되는 吐法과 下法에 일차적으로 傷하게 되는 脾胃를 고려한 전율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醫學正傳』의 ‘肝木常有餘, 脾土常不足’의 의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丹溪心法』에서 밝힌 소아는 ‘肝이 有餘하고 腎은 不足’하다고 밝힌 것³⁶⁾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肝	心	脾	肺	腎
疳病	地黃元	安神丸	益黃散	益黃散	地黃元

표 2. 五臟疳病에 따른 治方

참고 『東醫寶鑑 · 小兒門』 〈變蒸：小兒變蒸 俗謂之牙生骨長 比如蚕之有眠 龍之蛻骨 虎之轉爪 皆同此類 變生而長也〉에 인용된 『醫林撮要』의 내용은 다소 편집이 되어 있어 비교해볼만한 내용이

한 가지의 現象만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五行의 性象(屬性)을 보면 八卦와 五行이 만날 때도 木金土는 陰陽의 屬性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陰木:巽卦, 陽木:震卦/陰金:兌卦, 陽金:乾卦/陰土:坤卦, 陽土:艮卦) 水火만은 陰火와 陽水の 한 가지 屬性을 갖게 된다(陰火:離卦/陽水:坎卦). 그러나 水火에도 陰陽의 屬性(性象)이 혼재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은 後天八卦에서 數理的(Digital)로 보면 陰火(離卦)는 陽土(艮卦, 胃, 降)와 만나게 되어 있고(陰火9→陽土8→陰金7→陽金6), 陽水(坎卦)는 陰土(坤卦, 脾, 升)와 만나게 되어 있기(後天八卦:陽水1→陰土2→陽木3→陰木4)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火로 자리하고 있는 心臟은 病變의 양상이 陽實證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現象이나 屬性상 順한 것이요, 水로 자리하고 있는 腎臟은 病變의 양상이 陰虛證으로 나타나는 것이 順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土(脾胃)와 관계된 病證에서는 도리어 心脾血虛(歸脾湯), 胃腎陽虛(眞武湯)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33) 虞搏, 『醫學正傳』, 성보사, 1986, p390 : 夫小兒八歲以前曰純陽, 蓋其眞水未旺, 心火已炎, 故肺金受制而 無以平木, 故肝木常有餘 而脾土常不足也.

34) 上揭書, p48 : 疳, 皆脾胃病亡津液之所作也, 因大病 或 吐瀉後 以藥吐下 治脾胃虛弱亡津液, 且小兒病疳 皆愚醫之所壞病.

35) 상계서, p47 : 脾胃病이면서 津液을 망실하여 腎臟(難經:腎主液)에 무리를 주는 것이 기본 병기가 된다.

36) 朱震亨, 『丹溪心法』, 요녕과학기술출판사, 1997. p104

되겠다.³⁷⁾ 또한 『醫林撮要』에서는 『小兒藥證直結』이 인용서적으로도 나오지 않는다.³⁸⁾

Ⅲ. 東醫寶鑑 - 小兒門에 나타난 錢乙의 五臟辨證

1. 총론

1) 小兒藥證直結³⁹⁾의 五臟虛實治法

① 治未病

【五臟所主虛實證】에서 인용하고 있듯이 ‘病邪의 위치와 季節的 特徵을 고려하여 治法을 구사해야 한다’⁴⁰⁾는 錢乙의 五臟虛實治法을 提綱처럼 밝히고 있는 『東醫寶鑑』의 내용은 『小兒藥證直結』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⁴¹⁾ 治法의 先後를 밝히고⁴²⁾ 있다. 이는 『東醫寶鑑 · 用藥』에 인용되고 있는 『內經 · 標本病在論篇』의 내용인 〈標本用藥先後〉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다⁴³⁾. 즉, 臟腑虛實에 따른 補瀉治法에 있어서 補瀉가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虛證이면 우선 ‘虛則補其母法’을 사용하고 후에 本臟을 돌보게 되고 實證이면 먼저 本臟을 치료하고 후에 ‘瀉其子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보감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錢乙의 五臟辨證의 관점과 虛實補瀉治法은 『金櫃要略 · 臟腑經絡先後病脈證』에 나오는 五臟虛實에 따른 병리기전의 예측과 무관하지 않다. 『金櫃要略』에서는 병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장부의 관계를 살펴서 미리 치료하는 것이 上工의 자세인 ‘治未病⁴⁴⁾’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東醫寶鑑 · 用藥』에서도 이러한 仲景先生의 ‘治未病’에 관한 내용이 고스란히 인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치료함에 邪氣로 인하여 먼저 靑을 받을 수 있는 臟腑를 보하는 것이 妙法이라는

37) 前掲書, 醫林撮要 권12, p24 : 의림촬요에는 동의보감에 인용된 문장 외에 “小兒有十變五蒸者 乃生精神意智也”라는 문구가 더 있다.

38) 上掲書, 「의림촬요의 의학적 연구」, p99 : 『醫林撮要』에는 없으나 『東醫寶鑑』에 추가된 저작은 『金櫃玉函經(張機)』, 『小兒方(錢乙)』, 『外科發揮(薛己)』 이상 3권이 있다.

39) 표6에서 확인 되듯이 小兒門 목차에서 醫論과 處方을 포함하여 총 33條 인용 됨.

40) 上掲書, 東醫寶鑑, p636 : “凡五臟 各至本位 卽氣盛不可更補 到所剋位不可更瀉 如肝病 到春不可補 到秋不可瀉. 餘倣此(錢乙)”

41) 上掲書, 小兒藥證直結, p69 : 원래 인용문 〈五臟上乘輕重〉이 아닌 〈雜病證〉에서 ‘먼저 母臟을 補하고 후에 下法을 쓰도록 한다’는 구절이 있기는 하다.

42) 上掲書, 東醫寶鑑, p636 : “...必先實母 後瀉子也”

43) 上掲書, 東醫寶鑑, p348 : “病發而有餘 本而標之 先治其本 後治其標. 病發而不足 標而本之 先治其標 後治其本”

44) 張機著, 郭東烈編譯, 金櫃要略譯解, 성보사, 2002. pp26~27 問曰 上工治未病何也. 師曰 夫治未病者 見肝之病 知肝傳脾 當先實脾, 四季脾旺不受邪 則勿補之.

것을 밝히고 있다⁴⁵⁾.

또한 『東醫寶鑑 · 小兒門』 〈五臟上乘〉에서는 賊邪⁴⁶⁾는 邪氣로서 病邪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待對가 되는 本臟의 生氣를 泄氣시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질병의 轉變을 생각할 때 生氣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上工이 취할 ‘治未病’의 자세가 되는 것이다.

② 心主熱, 腎主寒

『小兒藥證直結 · 瘡疹候』에서는 心이 熱을 生하고 熱이 나면 風을 낳는다⁴⁷⁾는 언급은 있으나 東醫寶鑑에서 인용하고 있는 心이 熱을 주관한다는 내용⁴⁸⁾은 없다. 그리고 錢乙先生의 입장은 五臟이 모두 熱에 관해서는 가능성⁴⁹⁾을 가지고 있지 어떤 장부도 주도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편차를 두지 않았다.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醫林撮要 등에도 언급이 되지 않은 내용이며 熱에 관한 내용에서 인용비중이 높았던 『醫學入門』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없다. 다만 心實證일 때 煩熱이 생긴다는 것과 壯熱, 身熱, 風熱등 熱狀의 원인이 心虛證일 때 다른 장부와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⁵⁰⁾는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心이 熱을 主하고 實證일 때 煩熱이 난다는 錢乙의 인용문은 오히려 『醫學入門』의 내용을 해석하여 〈五臟所主虛實證〉에 실은 것일 수 있다.

한편 腎이 寒을 주관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腎自病으로 ‘무릎 아래 정강이가 싸늘하게 거슬러 오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心主熱과 마찬가지로 『小兒藥證直結』에서 인용한 것⁵¹⁾이 아니고 內經⁵²⁾, 難經의 내용과⁵³⁾ 醫學入門의 내용⁵⁴⁾을 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二分法的인 陰陽, 氣血, 寒熱, 虛實의 기준을 통해서 인체의 생리적 · 병리적 상황을 해석하려는 李梴의 관점을 錢乙의 의론과 함께

45) 上揭書, 東醫寶鑑. p349 : 上工治未病 何也? 師曰 見肝之病 知肝傳脾 當先實脾. 中工不曉相傳 見肝之病 不解實脾 惟治肝也. 夫肝之病 補用酸 助用焦苦 益用甘味之藥. 夫酸入肝 焦苦入心 甘入脾. 脾能傷腎之氣 腎氣微弱 則水不行 水不行則心火盛 心火盛則傷肺 肺被傷則金氣不行 金氣不行則肝木自愈 此治肝補脾之要妙也. 餘藏倣此(仲景).

46) 『東醫寶鑑 · 小兒門』 【五臟上乘】에 正邪, 微邪, 虛邪, 實邪, 賊邪를 錢乙의 의론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小兒藥證直結』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다만 上卷 · 【五臟上乘輕重】에는 계절에 따른 오장병증에 관한 내용이 비슷하게 다루어졌는데도 『難經』에 처음 나오는 五邪의 내용을 錢乙의 醫論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五臟辨證’의 체계를 錢乙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47) 上揭書, 소아약증직결. p27 : 斑子于心所生, 心生熱, 熱則生風, 風屬於肝.

48) 上揭書, 東醫寶鑑. p637 : 心主熱, 實則煩熱

49) 上揭書, 소아약증직결, 面上證 : “左腮爲肝, 右腮爲肺, 額上爲心, 鼻爲脾, 頰爲腎, 赤者熱也, 隨證治之” 라고 하였으니 五臟熱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50) 李梴, 『醫學入門』, 대성문화사, 1984. p86

51) 上揭書, 소아약증직결, 瘡疹候 : “靨耳俱屬於腎 其居北方主冷也” 직접적으로 腎主寒의 내용은 없으나 腎主冷에 관한 내용은 있다.

52) 上揭書, 東醫寶鑑, 審病, p338 : 至眞要大論篇에 王冰이 注를 단 부분인 “心盛則生熱, 腎盛則生寒, 腎虛則寒動於中....”라고 한 부분정도가 의미상으로는 통한다.

53) 上揭書, 東醫寶鑑, 腎臟 : 外證, 面黑, 善恐, 數欠....泄如下重, 足脛寒而逆(難經)

54) 上揭書, 의학입문. p87 : 腎寒畏明顛自解, 腎只不足 惟瘡瘡 腎實則黑陷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입문의 내용을 빌어 ‘導赤散’과 ‘地黃元’의 대비를 통해서 心熱과 腎虛를 직접적으로 대별시켜 五臟과 寒熱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丹溪의 ‘陽常有餘陰常不足論’의 영향을 받은 醫學入門의 내용을 통해서 陽實證으로 대별되는 心熱과 陰虛證으로 대별되는 腎寒을 통하여 虛實과 寒熱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⁵⁵⁾. 물론 동의보감의 내용도 그렇지만 錢乙先生도 虛熱에 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⁵⁶⁾ 【東醫寶鑑 · 諸熱】에서는 熱證이 발생할 때 虛證이 없으면 溫補法을 쓰지 말 것을 인용하고 있고⁵⁷⁾ 虛熱과 實熱을 구분한 『醫學入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니 實證과 熱證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소아에게 있어 心臟이 實證의 양상을 보이면 熱狀이 보이고 腎臟이 虛證의 양상을 보이면 寒狀이 보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리라.

③ 相生法을 통한 치료

봄에는 천지간에 생기가 일어나서 만물이 소생하고 번영한다. 『內經 · 四氣調神大論』에서 밝힌 것처럼 이 때는 생장을 도와주고 몸도 마음도 유연하게 돌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다⁵⁸⁾. 사계절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봄은 小兒에 해당한다. 봄날에 생기를 살리는 방향이 양생의 도인 것처럼 소아가 병에 걸리면 생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치법을 구사했던 분이 바로 錢乙先生이다.

驚風의 대표방인 ‘抱龍丸’은 錢乙이 창방한 것(抱龍圓)⁵⁹⁾인데 丹溪가 여기에 注를 달아 해석하기를 “肝이 母臟이 되고 心이 子臟이 되는데 母臟이 편안하면 子臟이 자연히 편안해진다”⁶⁰⁾고 하였으니 전을 선생이 상생의 기전에 주목하여 치법을 구사했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처방을 운용할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疳病에서도 “母臟이 편안하면 子臟의 병증은 자연스럽게 치유된다”⁶¹⁾고 하였는데 『東醫寶鑑 · 雜病篇』 〈用藥門 · 子母補瀉〉에 밝히고 있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脾肺관계에 허실보사법의 운용은 小兒門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肺虛證에는 脾土를 補하여 脾氣가 肺氣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평안해지는 방법이라고 하였다⁶²⁾. 이는 相生의 측면에서 補瀉法을 구사한 것인데 질병의 傳變을 생각할 때는 相剋을 고려하지만⁶³⁾ 治法을 구사할 때는 順向을

55) 의학입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웅석,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研究』, 한국사학회지, 14권2호. p208~209, 218~231’를 참조

56) 上揭書, 소아약증직결. p93 : 錢曰 虛熱, 若實熱, 何以瀉心湯下之不安 而又加面黃頰赤 五心煩躁 不食而引飲.

57) 上揭書, 동의보감. p648 : 凡熱證 疎利後 或如和解後 無虛證 勿溫補 熱必隨生(錢乙).

58) “春三月 此謂發陳 天地俱生 萬物以榮 夜臥早起 廣步於庭 被髮緩形 以使志生 生而勿殺 予而勿奪 賞而勿罰 此春氣之應 養生之道也 逆之則傷肝 夏爲寒變 奉長者少”

59) 上揭書, 동의보감. p640 : “抱龍丸, 治驚風 潮搐 身熱 昏睡 能下痰熱 乃心肺肝藥也. 牛膽製南星 40g(無膽星 則只取生者) 劉妙熱 用之, 天竺黃20g 雄黃 朱砂 各10g 麝香4g 爲末...(錢乙).” 丹溪心法の 抱龍丸, 醫學正傳의 抱龍丸과 그 용량이 다르다.

60) 上揭書, 동의보감. p640 : 抱者保也 龍者肝也 肝爲母 心爲子 母安則子安 沉心臟神 肝藏魂 神魂既定 驚從何生(丹心)

61) 上揭書, 동의보감. p644 : 諸疳 皆依本藏 補其母 假令 日中發潮熱 是心虛熱也 肝爲心母 法當先補肝母 肝實而後瀉心 得母氣 則 內平而潮熱 自愈矣(錢乙).

62) 上揭書, 동의보감. p350 : 『難經』曰 虛則補母 實則瀉子. <註>云 假如肺金之病而實 當竭腎水 使子來求食於母 則肺之實可得而平矣. 肺之虛 當補脾土 則母來生子 使肺之虛 可得而平矣. 他藏倣此(錢乙).

보고서 치료하도록 한 것이다. 小兒門에서는 ‘肺主喘’일 때 그 예⁶⁴)가 적용되고 있다⁶⁵). 感冒風寒에 사용하는 ‘蓼蘇飲’에는 人蔘, 半夏, 茯苓, 陳皮, 甘草가 들어있고 益黃散⁶⁶)에는 陳皮, 甘草를 惺惺散에는 人蔘, 白朮, 白茯苓을 사용하면서 脾肺를 동시에 고려한 처방들로 소아의 風寒感冒와 痰涎喘嗽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腎虛의 대표처방인 地黃元을 肝虛에도 응용하고 있는데⁶⁷) 驚風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腎水를 도와 ‘水生木相生’의 기전으로 처방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金元四大家의 醫論 수용

① 肝常有餘 脾土不足

『醫學正傳』에서는 소아병증 중에서 急 · 慢驚風과 痘疹의 증상이 제일 가혹한 질환으로 급박하게 예후가 나빠질 수 있음을 강조⁶⁸)하였는데 실제 『醫學正傳』에서는 소아과 질환으로 急慢驚風 · 發搐 · 五癇, 諸疳證, 吐瀉, 痘疹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 내에서도 驚風과 痘疹에 관한 醫論과 治方이 다른 내용에 비하여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丹溪學派가 바라보는 소아의론⁶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朱震亨이 말한 肝病과 脾病이 소아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肝은 有餘하고 腎은 不足”하다는 의론⁷⁰)에 따라 急慢驚風 · 發搐 · 五癇은 肝이 有餘한 대표병증으로 痘疹은 腎이 不足한 대표병증으로 크게 대별하고 있으며 비토가 부족한 증상은 疳病, 吐瀉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心主驚, 心火, 心主熱

63) 上揭書, 동의보감. p342 : 內經의 玉機眞藏論篇, 標本病在論篇에서 보이듯이 장부병의 傳變은 상극의 원리를 통해서 전달된다.

64) 上揭書, 동의보감. p637, 651 : 脾肺病 久則虛而唇白 脾者 肺之母也 母子皆虛 不能相營 故曰怯 此以唇診 肺之法也. 唇白色者 肺藏怯也(錢乙).

65) 上揭書, 의학정진. p386 : “소아의 질병은 태반이 胎毒이고 그 반이 傷食이고 外感風寒의 증상은 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여 外感과 비슷한 變蒸은 胎毒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는 丹溪의 의론(小兒變蒸者 胎毒散也)을 따르면서 실제 傷寒과 같은 증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脾胃中土의 문제와 外感病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補脾하는 것이나 傷食을 풀어주는 것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6) 동의보감에서는 錢乙의 益黃散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五臟門에는 海藏 왕호고 王好古선생의 益黃散을 慢驚風에는 東垣선생의 益黃散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金元四大家 중에서 東垣學派가 脾胃中土의 보법에 관한 주도적인 위치에 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67) 上揭書, 동의보감. p637 : 肝病 風搖拘急 實則風搖力大 瀉青丸主之. 虛則風搖力小 六味地黃元主之(錢乙)

68) 上揭書, 의학정진. p403 : 小方脈科 惟急慢驚風 與夫痘疹等證 最爲酷疾 以其吉凶反掌 生死須臾故也.

69) 上揭書, 丹溪心法. p104~112: 의학정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急 · 慢驚風, 疳病, 吐瀉 등의 병증을 94면에 痘疹에 관한 것을 95면에 다루고 있을 뿐이다.

70) 上揭書, 丹溪心法. 小兒, p104 : 大概肝與脾病多. 小兒易勞, 肝病最多, 大人亦然, 肝只是有餘, 腎只是不足.

『儒門事親 · 辨十二經水火分治法』⁷¹⁾에서 張子和 선생이 밝힌 것처럼 12경락을 3가지로 나누면 四經은 火요, 四經은 濕이며 四經은 寒과 熱이 동시에 있으니 이를 다시 半으로 나누어 보면 寒熱일 뿐이라는 醫論에 따라 <小兒門 · 驚風發搐不可把捉>의 의안을 보면 風邪, 肝風을 잠재우려 하지 말고 心主熱의 원리에 따라 熱邪를 잠재워 치료하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驚風에 동반되는 發搐은 손을 잡아 風木을 잠재우려 하지 말고 濕하고 평탄한 곳에 누여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우물물(寒水)로 닦아주었더니 나왔다고 하였다⁷²⁾. 이는 또한 『儒門事親 · 過愛小兒反害小兒說』⁷³⁾에서 小兒病機를 밝힌 대로 胎生病을 제외한 驚疳吐瀉의 네 가지 병증의 원인은 모두 火라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치법이다. 또한 <小兒門 · 吐瀉>에서는 여름철 설사질환(暑瀉)에 錢乙先生의 玉露散⁷⁴⁾과 劉河間 선생의 益元散⁷⁵⁾을 쓰도록 하고 있으니 濕熱病(脾病)치료에 열을 먼저 치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溫補法에 능했던 李東垣先生조차도 小兒는 쉽게 열이 날 수 있는 陰이 不足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⁷⁶⁾.

③ 腎主虛, 腎中火邪

東垣先生은 먼저 腎中에 火邪로 皮膚병증⁷⁷⁾이 나타나는데 滋腎丸과 六味地黃元을 처방하고 陰血을 기를 것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잘못된 섭생이 腎中에 火邪⁷⁸⁾로서 胎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臨床例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藥毒으로 발생한 淋病 또한 부모의 燥熱病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丹溪는 이를 일러 東垣이 제시한 紅絲類처럼 胎毒에 의한 것이라고 注를 달고

71) 上揭書, 동의보감. p348 : 水火分治歌 歌曰 肝膽由來從火治 三焦包絡都無異. 火. 脾胃常將濕處求 肺與大腸同濕類. 水. 腎與膀胱心小腸 寒熱臨時旋商議(水火各半) 惡寒表熱小勝濕 惡熱表寒心腎熾. 十二經最端的 四經屬火 四經濕(肝膽三焦包絡屬火 脾胃大腸屬濕) 四經有熱有寒時 攻裏解表細消息(心小腸腎膀胱寒熱各半) 裏熱裏寒宜越竭 表熱表寒宜汗釋. 濕同寒火同熱 寒熱到眞無兩說. 六分來火熱寒(儒門事親 : 六分來 半分寒熱) 寒熱中停眞浪舌. 熱寒格拒病機深 亢則害兮承乃制. 緊寒數熱脈正邪 標本治之眞妙訣. 休治風 休治燥 治得火時風燥了. 當解表時莫攻裏 當攻裏時莫解表. 表裏如或兩可攻 後先內外分多少. 治濕無過似決川 此箇筌蹄最分曉. 感謝軒岐萬世恩 爭奈醜雞笑天小(子和).

72) 上揭書, 동의보감. p638 : 一小兒 病手足搐搦 <戴人>曰 必火勝也. 勿持捉其手 任其搐搦 此由乳母 保護太過所致 乃令爭掃地 以水洒之 令極濕 臥兒于地上 良久渾身轉側 泥漿皆滿 仍以井水洗之 卽差(子和).

73) 張子和撰著, 儒門事親 卷一, 旋風出版社, 1967. p37 : 小兒除胎生病外有四種 曰驚曰疳曰吐曰瀉 其病之源止有二 曰飽曰緩. 驚者火乘肝之風木也, 疳者熱乘脾之濕土也, 吐者火乘胃腑甚則上行也, 瀉者火乘肝與大腸而瀉者也.

74) 寒水石, 石膏, 天花粉, 滑石 各一兩 甘草五錢

75) 滑石六兩 甘草一兩

76) 上揭書, 동의보감. p632 : 小兒乳哺法 ○ 小兒血氣俱盛 食物易消 故食無時 然腸胃尙脆而窄 一切發熱 難化之物 皆宜禁絕 … (東垣). 人生十六歲以前 血氣俱盛 如日方升 如月方圓 惟陰長不足 腸胃尙脆而窄 養之道 不可不謹(東垣).

77) 上揭書, 동의보감 p654 : <東垣>曰 汝腎中伏火 精中多有紅絲 以氣相傳生子 故有此疾 俗名胎瘤 是也. 令視之果如其言 遂以滋腎丸方見小便 數服 瀉腎中火邪 忌酒肉辛熱之物 其妻以六味地黃元方見虛勞 養其陰血… (東垣).

78) 李東垣, 『脾胃論 · 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 대성문화사, 1997. p87 : “…心火者 陰火也, 起於下焦, 其系繫於心 心不主命 相火代之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라고 한 것처럼 李東垣은 心火와 연결된 腎中의 火는 온전치 못한 心臟을 대신하여 邪氣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표현을 元氣의 賊이라고 하였다.

있다⁷⁹⁾. 丹溪가 소아병증의 대부분이 胎毒에 의한 것이라고 했던 의미가 바로 좁게는 선천적인 문제와 결부된 腎中火邪이며 넓게는 腎臟과 관계된 제반병증을 胎毒과 연결지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醫學正傳의 小兒科에서도 胎毒에 의한 병증은 넓은 의미의 태독에 해당되는 증상인 變蒸, 痘疹, 斑爛... 解顛, 重舌 등으로 열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⁸⁰⁾.

④ 脾胃中土 - 心腎相交의 위치

痘斑疹三證이 오로지 胎毒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동의보감의 내용을 보면 李東垣은 陽明胃의 위치에 서⁸¹⁾ 王好古는 太陰脾의 위치에서⁸²⁾ 腎水가 心火의 炎上된 상태와 만날 수 없는 상태가 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醫學正傳이 단순히 少陰君火와 少陽相火의 太過에 의한 熱毒⁸³⁾이나 陽盛無陰⁸⁴⁾으로 판단한 것보다는 脾土를 중심으로 한 心腎相交(陰陽迭用, 剛柔互體)의 오장 상호간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⁸⁵⁾. 이에 丹溪心法이나 醫學正傳에서는 단순히 血熱에 四物湯加減과 氣虛에 保元湯加減을 사용하고 있는데⁸⁶⁾ 이는 張元素나 李東垣이 保元湯을 썼던 이유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保元湯의 기본 취지는 陰陽相交의 위치인 中焦를 건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⁸⁷⁾으로 水火의 이상으로 軸이 흔들리는 상황에 먼저 中土를 유념했던 처방이 바로 保元湯⁸⁸⁾인 것이다. 그래서 痘瘡(·腎虛心火)의 通治方으로도 保元湯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⁸⁹⁾. 張元素가 만들어낸 保元湯에 李東垣은 허로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血劑와 降氣劑인 當歸와 柴胡, 升麻(補中益氣湯)를 가감할 수 있었

79) 上揭書, 동의보감. p654 : 一童子 自初生 患淋5~7日. 必一發 發則大痛 下如黍粟者 約一盃 然後定意 其父必多服 下部藥 遺毒 在胎留於子之命門而然 以半日痛 大作連腰腹 乃下如黍粟者一椀許 病減十分之八 父得燥熱 且能病 子沉母得之者乎 書此以證 <東垣> 紅絲瘤之事(丹心)

80) 上揭書, 의학정진. p386

81) 上揭書, 동의보감. p654: 痘瘡疹三證專由胎毒 ... 諸瘡疹皆出於腎水 其瘍後聚肉理 歸於陽明 故三番瘡 始見之證 皆足太陽壬膀胱剋內小腸 其始出皆見於面 終歸於陽明 肉理熱化爲膿者也. 二火熾盛 反勝寒水 遍身俱出 皆從足太陽 轉變中來也(東垣).

82) 上揭書, 동의보감. p654: 癍之爲病 皆由子在腹中時浸漬 食母血穢 蘊而成毒 皆太陰濕土壅滯 君相二火之所作也(海藏).

83) 上揭書, 동의보감. p654: <內經> 曰“諸痛痒瘡瘍 皆屬心火” 蓋因胎毒 藏於命門 遇少陰少陽司天 君相二火太過 熱毒流行之年 則發作矣(正傳).

84) 上揭書, 동의보감. p655 : 【油飲子】 小兒陽盛無陰 以...此伏熱之兆 鄉隣有痘證 取眞麻油一升 逐日飲之 令盡則永不出痘(正傳).

85) 上揭書, 동의보감 p343, 350: 升降失常爲病 의 내용을 보면 『內經 · 太陰陽明論』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陽病은 위로 오르는 데 반드시 中焦를 거치고 陰病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또한 中焦를 거친다고 하였으며(陽病者 上行 極而下, 陰病者 下行 極而上, 上下必干中焦 於是三焦潤亂 內外氣塞). 補瀉相兼의 내용에서는 의학입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脾土에서 水火가 相交해야 만물이 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蓋脾爲中州 水火交濟 而後能生萬物也). 그러니까 陰陽水火를 고려함에 中土는 항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86) 上揭書, 동의보감. p660: 辨痘形色善惡 黑屬血熱 涼血爲主 四物湯方見血門加黃芩 黃連 紅花. 白屬氣虛 補氣爲主 保元湯方見上 去甘草 加紫草(丹心).

87) 上揭書, 동의보감. p177: <先賢>有言 “夏則土燥 而水濁 冬則土堅 而水清” 此其理也. 水火既濟 則土自堅 其流清矣. 小便白濁 蓋脾有虛熱 而腎不足 土邪干火也(得效).

88) 【黃芪湯】 治慢驚風 大便泄青色. 黃芪8g 人參4g 甘草灸2g ... 加白芍藥4g 尤妙. 此證 風木旺 必剋脾土 宜先實其土 後瀉其木 是爲神治之法 : <一名> 【保元湯】 (東垣)

89) 【保元湯】 治痘瘡通治 人參8g 嫩黃芪 甘草各4g ... 入薑一片 水煎服(醫鑿).

던 것이다. 즉, 升降의 기전을 고려하게 되면 補中益氣湯에 當歸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瀉黃散, 瀉青丸, 敗毒散, 白朮散 등의 錢氏小兒方을 清胃散, 升陽散火湯, 補中益氣湯, 升陽除濕湯 등의 처방으로 바꾸어 사용하거나 益黃散에 黃氣를 가감⁹⁰⁾하거나 白朮散에 葛根⁹¹⁾ 등을 가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元, 明代 綜合醫書의 取用

『東醫寶鑑 · 小兒門』은 소아전문의서인 『소아약증직결(A.D1119)⁹²⁾』보다 元代 종합의서인 『仁齋直指方(A.D1264)⁹³⁾』과 『世醫得效方(A.D1345)』, 明代 종합의서인 『醫學入門(A.D1575)』, 『萬病回春(A.D 1587)』, 『古今醫鑑(A.D1576)』의 인용비중이 높은 편⁹⁴⁾이다. 이 중에서 의학입문과 득효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得效方(元,1345)

〈小兒病難治⁹⁵⁾〉에서 소아는 陰陽, 表裏, 虛實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허실치법을 주로 쓰고 陰陽, 表裏를 통해서 病證의 豫後를 판단하고 있다. 이 외에 병증과 관계된 인용보다는 갖 태어난 아이들의 관리법에 관한 인용이 많다. (예-小兒乳哺法, 初生解毒法, 小兒保護法, 相兒命 長短法, 小兒初生救急 등)

② 醫學入門(明,1575)

주로 養子法(小兒保護法, 養子十法, 調護歌), 診斷法(맥법-虎口三關脈法, 診小兒脈法/ 망진-觀形察

90) 上揭書, 동의보감. p640 : 『益黃散』 治慢驚風 黃芪8g 人參 陳皮各4g 白芍藥3g 生甘草 炙甘草各2g 白茯苓1.5g 黃連1g ... 【黃芪益黃散】 凡驚兒 瀉青色 大禁 涼驚丸 蓋風木旺 必剋脾土 當先實其土 後瀉其木也. 當於心經中 以甘溫 補土之源 更於脾土中瀉火 以甘寒補金 以酸涼 使脾土中金旺火衰則風木自虛矣(東垣).

91) 李東垣, 內外傷辨惑論, 대성문화사, 1995 p53: 북통과 중기허약을 다르림에 있어서는 소견중탕+황기, 혹은 이공산+芍藥을 사용하거나 白朮散倍葛根¹⁾ 가감을 사용하였다.

92) 모든 인용을 錢乙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醫方類聚』에서 인용한 『小兒藥證直結』이라는 서명 보다는 『鄉藥集成方』에서 인용된 것처럼 저자의 이름을 딴 『錢氏方』, 『錢氏小兒方』의 서명이 더욱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따라서 『東醫寶鑑』에서는 역대의방에 錢乙의 저서로 『傷寒知微論』과 『小兒方』의 서명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3) 『醫方類聚』에는 『直指小兒方』으로 인용된 것을 『東醫寶鑑』에서는 直小이라고 표기.

94) 金重權,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1995 : “의서의 인용빈도를 본다면 본초부분을 제외하고 李梴의 『醫學入門』이 총 2781회로 가장 많고 다음은 『丹溪心法』이 1275회 『得效方』이 1084회 『醫學綱目』이 926회 『素門』과 『靈樞』를 합친 『黃帝內經』이 861회 『古今醫鑑』이 726회 『醫學正傳』이 553회 『東垣十書』와 『萬病回春』이 525회 등 여타의 서들 순이다”라고 한 것처럼 다른 門들과 비슷하게 종합의서의 인용이 많은 편이다.

95) 上揭書, 동의보감, 소아문. p632 : ... 易虛易實 易冷易熱 兼之口不能言 手不能指 疾痛之莫知 非觀形察色 聽聲切脈 究其病源 詳其陰陽 表裏虛實而能療之者 蓋亦寡矣

色圖, 五體以頭爲尊一面惟神可恃/ 聞診-聲有輕重 啼有乾濕)의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병증에서는 肝心과 관계된 驚風證과 脾臟과 관련된 疳病(諸疳)과 腎臟과 관련된 痘瘡(痘瘡諸證, 辨痘吉凶, 辨痘輕重順逆, 辨痘形色善惡, 辨痘虛實)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2. 東醫寶鑑 · 小兒門에 나타난 五臟辨證

1) 望診(五臟部位)을 통한 공간적 기준설정

『直結 · 面上證⁹⁶⁾』에 나오는 내용은 『東醫寶鑑 · 小兒門』 〈諸熱〉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醫學入門』의 明堂察色圖를 인용하면서 直結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데 〈審病門 · 明堂察色⁹⁷⁾〉에서는 熱證이 얼굴에 나타날 때를 말하고 있고 〈火門〉에서는 『醫學綱目』에 인용한 장부열을 판단하는 부위에 관해서 보충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망진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소아문에 인용되고 있는 망진부위는 모든 병증에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小兒의 熱證을 진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즉, 소아는 코(鼻)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나타나는 색을 살피는 것이 熱의 위치를 알아내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리라.

2) 五臟所主의 체계로 목차를 구성

【相兒命長短法】, 【虎口三關脈法】, 【診小兒脈法】 / 【面上形證歌】, 【五體以頭爲尊一面惟神可恃】 / 【聲有輕重啼有乾濕⁹⁸⁾】에서는 【小兒病難治】에서 밝혔듯이 질병으로 다루어 치료해야 하는 소아질환의 경우 觀形, 察色(望診), 聽聲(聞診), 切脈(切診)⁹⁹⁾을 통해서 陰陽表裏虛實을 가늠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四診을 통해서 변증해 낼 만큼 여유 있는 증상이 아닌 응급질환에 관해서는 【小兒初生救急】, 【噤口撮口臍風證】, 【客忤中惡】, 【夜啼】이 네 가지 분야에서 다름으로써 오장허실로 변증되고 치료되어야 할 질환과 구분하고 있다.

96) “左腮爲肝 右腮爲肺 額上爲心 鼻爲脾 頰爲腎 赤者熱也 隨證治之”

97) 上掲書, 동의보감. p337

98) 【臟腑生成】을 통해서 임신10개월 동안 장부의 변화를 밝혔고 【初生解毒法】, 【初生洗浴法】, 【初生斷臍法】을 통해서 출생 직후에 조치법과 【擇乳母法】, 【小兒乳哺法】를 통해서 출생 직후 모유의 공급에 관해서 【小兒保護法】, 【養子十法】, 【調護歌】에서는 출생 직후 관리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變蒸候】를 통해서 생후 10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99) 難經에서는 “望診(五色)→知其病, 聞診(五音)→別其病, 問診(五味)→病所起, 病所在, 切診(虛實)→在何臟腑”라고 하였으니 동의보감 소아문의 목차를 보면 물론 장부의 허실을 판단하는 切診의 비중이 높지만 望診과 聞診에 관한 내용도 상당부분 있다.

提綱과도 같은 의미가 되었다¹⁰³⁾. 특히 胎毒에 의한 痘斑疹三證에 관계된 그 이하의 병증은 腎虛를 동반하고 발현되는 제반증상이라고 파악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痘瘡諸證에는 腎虛와 관계된 증상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⁴⁾. 그 중에 便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痘疹用藥에는 대소변이 잘 통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 東醫寶鑑【三一承氣湯】의 인용문을 보면 東垣先生이 注 달기를 氣血로서 말하자면 小便은 氣에 해당하고 大便은 血에 해당되지만 腎이 大小便難과 관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尿澁便秘는 津液이 부족(水少)해서 생기는 병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⁰⁵⁾. 이렇듯 설사 지금은 痘瘡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아 중에 腎虛라고 변증되는 아이들의 豫後와 治法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痘瘡를 이미 없어진 질병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3) 虛實, 陰陽, 表裏, 順逆에 따른 치법 과 예후

東醫寶鑑에서는 대표적으로 驚風(驚風大抵熱論虛實證別逆順治有後先)과 두진(辨痘輕重順逆, 辨痘形色善惡, 辨痘虛實, 辨痘陰陽證)에서 虛實順逆에 따른 治法과 陰陽表裏에 따른 예후의 관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하 내용은 <표 4> 와 <표 5> 로 대신한다.

驚風	痘瘡
實熱：身熱 飲水 不大小便 秘澁 虛熱：身熱 不飲水 大小便如常	黑屬血熱 涼血爲主 白屬氣虛 補氣爲主
蓋實熱 爲急驚 虛熱 爲慢驚	不吐瀉 能食爲裏實 紅活凸綻 無汗爲表實 涼膈散方見火門加升麻 乾葛 紫草 荊芥解之
急驚 屬陽明 用藥以寒 慢驚屬陰 用藥以溫	身熱無汗 爲表實 身涼多汗 爲表虛 便秘能食 爲裏實 吐瀉少食 爲裏虛
	肺主氣 氣不足則致三證 自汗 聲不出 瘡頂陷塌 宜保元湯方見上 四君子湯方見氣門.
	心主血 血不足則致三證 灰白色 根窠不紅 不光澤 宜芎歸湯方見婦人 或四物湯 加紫草 紅花
	足脛冷 腹虛冷 糞青色 面眊白 嘔乳食 目睛青 脈沈數 已上屬陰證 不可服 冷藥.

103) 萬全, 育嬰家秘, 卷之一, 중국중의약출판사, 1999, p470 : "小兒初涎多胎疾, 能食過多爲食積, 於斯二者作提綱, 仲陽復起從吾議. 小兒之疾 如痘疹丹瘤臍風變斑黃蟲疥解顛五軟之類 皆胎疾也. 如吐瀉瘧痢腫脹痞積疳勞之類 皆傷食之疾也. 惟發熱咳嗽 或有外感風寒者. 故曰小兒之疾屬胎毒者十之四 屬食傷者十之五 外感者十之一二. 驚癇原來肝有餘, 脾常不足致疳虛, 形體不全之腎弱...大抵小兒脾常不足肝常有餘 腎主虛亦不足也. 故小兒之病 驚風屬肝 疳癆屬脾 胎氣不足屬腎.

104) 有聲音 咽喉痛 腰腹痛...自汗 痒痛 斑爛 寒戰 咬牙...尿澁 便秘 등 腎虛를 기본으로 하는 제반 합병증을 다루고 있다.

105) 芒硝 以大黃引之 直入大腸 潤燥軟堅 瀉熱以在下 言之 便尿俱陰 以前後言之 卽前氣後血 以腎言之 揔主大小便難. 夫尿澁便秘 俱爲水少. <經>曰 "熱淫于內 治以鹹寒 佐以苦" 故用芒硝 大黃 相須爲使也(東垣).

	足脛熱 兩腮紅 大便秘 小便赤 渴不止 上氣急 脈洪數 已上屬陽證 不可服 熱藥
--	---

丑 4. 虛實, 陰陽, 表裏, 順逆 에 따른 治法

驚風	痘瘡
搯男左女右爲順 易治 搯男右女左爲逆 難治.	瘡疹屬陽 出則爲順 故春夏爲順 秋冬爲逆
其指紋形勢彎弓入裏者順 其指紋形勢彎弓出外者逆	凡出痘收靨 從頭至足爲順 從足至頭爲逆.
男爲陽 木發 左視 無聲則順 右視 有聲則逆	輕者 靨出俱從頭至足 痘亦稀. 重者 稠密頭上 未出未靨 脚上先出先靨
撮口同證 視其眉間氣色 紅赤者生 青黑者死	身體溫暖者 順 寒涼者 逆. 能食大便實者 順 不能食 大便利者 逆
慢脾風之候 面青額汗 舌短頭低 眼合不開 睡中搖頭吐舌 頻嘔腥臭 噤口咬牙 手足微搯而不收 或身冷或身溫 而四肢冷 其脈沈微 陰氣極盛 胃氣極虛 十救一二	丹毒 自腹内生 出四肢 則易愈 自四肢 入腹則難治
始也 身熱搯掣啼叫 是爲陽痢易治 始也 身無熱 手足清冷 不搯掣 不啼叫 是爲陰痢 難治	痢落 從頭上 至胸膈 手腹腰足節 節緩緩 靨下者 吉.陰囊及足上 先靨起者 凶 痘以脾胃爲主 自始至終 以能食爲順 又曰 淡食爲佳.

丑 5. 虛實, 陰陽, 表裏, 順逆 에 따른 豫後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東醫寶鑑
小兒序論 생략	總論	【小兒病難治】
小兒口噤, 생략	浴兒	【變蒸候】 생략
小兒撮口 생략	變蒸	【診小兒脈法】 생략
小兒顛陷	眼, 耳	【小兒初生救急】
小兒壯熱,	鼻, 齒	【噤口撮口臍風證】
小兒變蒸,	龜背	【客忤中惡】 【夜啼】
小兒客忤,	難乳	【五臟所主虛實證】
小兒中馬毒	脾胃	【心主驚】 【肝主風】
小兒驚啼, 小兒夜啼, 小兒軀啼	黃疸	【脾主困】 【肺主喘】
..... 생략	宿食	【腎主虛】 【五臟相乘】
小兒中惡, 小兒卒死	癰疽	【驚風證】 【驚風先見之證】
小兒盜汗	湯火傷 생략
小兒傷寒, 小兒傷寒鼻衄	丹毒	【驚搯之證有五】
小兒時氣, 小兒熱病		【搯搯瘰癧輕重】
小兒疹痘瘡,		【驚搯有聲無聲】
小兒斑瘡	 생략
..... 생략		【急驚風】 【慢驚風】
	 생략

小兒痰實, 小兒瘧疾 小兒冷熱不調 小兒脾胃氣不和不能飲食 생략 小兒驚熱 小兒慢驚風, 小兒急驚風 생략 小兒髮不生, 小兒白禿瘡 小兒語遲, 小兒行遲 생략 小兒大便不通 생략 小兒蛔蟲, 小兒蟯蟲 小兒陰癩, 小兒陰腫 諸淋 疥疔 疥疔鍼灸 諸蟲 諸疔 傷寒 傷寒鍼灸 諸汗 雜病 雜病禁忌 雜病鍼灸	【癩癩】 【疔病】 【諸疔】 생략 【諸熱】 【積癖】 【吐瀉】 【感冒風寒】 【痰涎喘嗽】 【泄痢】 【腹痛腹脹】 【解顛】 생략 【語遲行遲】 생략 【痘癩疹三證專由胎毒】 생략 【辨痘證】 생략 【痘瘡治法】 【痘瘡日限】 【發熱三朝】 【出痘三朝】 【起脹三朝】 【貫膿三朝】 【收醫三朝】 【辨痘輕重順逆】 생략 【痘瘡諸證】 【痘後諸疾】 【附孕婦痘瘡】 【附癩疹】
총 8 회	총 21 회	총 33 회

표 6.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東醫寶鑑 에 인용된 小兒藥證直結

IV. 맺음말

『東醫寶鑑』에서는 錢乙의 〈五臟辨證〉을 한층 심화하여 소아의 생리, 병리적 특징을 포괄할 수 있는 주단계의 ‘陽有餘陰不足論’과 이동원의 ‘脾胃論’을 이해하면서 오장변증을 체계화하였다. 心火와 腎水を 五臟의 樞機로 삼고 脾胃中土를 허실변증의 요체로 삼아서 五臟所主의 체계로 목차를 제 구성하고 병증을 분류하게 되었다.

또한 五臟辨證과 더불어 虛實補瀉를 기본 治法으로 삼고 陰陽, 表裏를 판단하여 병증의 順逆과 輕重을 따져서 예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는 먼저 편찬된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醫林撮要』에서 밝힌 錢乙의 五臟辨證내용과 함께 金元四大家의 의론을 수용하게 되면서 한층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